

Dear My Valued Friends...

February 22, 2007

무슨 바람이 들었는지, 16년 동안 몇 번 보내 본 적 없는 편지를 쓰려고 컴퓨터(!) 앞에 앉아 있습니다. 친구들에게 존댓말로 편지를 보내려니 느낌이 이상하지만, 반말보단 이게 좋을 것 같군요. 편지는 손으로 쓰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, ~~아무도 제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~~ 일일이 다 쓰기 귀찮아서 컴퓨터로 씁니다. (ㅎㅎ)

3년이 쏘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. 오늘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지금처럼 자주 볼 수 없을 것이고, 어떤 친구들은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네요. 물론 다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, 만나기가 그리 쉽겠어요?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슬퍼집니다.

'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'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. 전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 건지, 그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. (웃음) 다른 말을 하고 싶어요. 늘 행복하게 지내고,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.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성공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네요. 물론 맞죠. 저는 단지 물질적 성공에 집착해서 그 성공이 무엇을 가져오는 성공인지 잊어버리는 일이 없길 바라고 싶을 뿐입니다. 제가 보기에 요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대개 물질적 성공을 말하는 것 같아하는 말이에요. 행복한 삶이 '성공'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의 소중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, 저도. (오히려 이걸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일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17살이 아닌 71살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, 충고하는 것처럼 편지 쓰고 있네요. 저도 참...)

물질적 성공은 행복으로 가는 한 가지 길일 뿐입니다. 물론 꽤 괜찮은 길이긴 하죠. 하지만,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이 길 하나뿐이라고 생각해 힘들어하곤 하는 것 같아요. 자신이 지금 힘든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며 말이죠. 20년 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
편지를 쓰며 타이핑하며 20년 후의 우리들 모습을 상상해봅니다. 다들 행복한 모습이네요. 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, 자신의 삶을 사는 행복한 모습.... 모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,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와 함께 이만 줄입니다. 다음에 꼭 만날 수 있길 빌며...

"지금은 준비단계니까 열심히 시키는대로만 해. 나중에 언젠가 꽃을 피울 날이 있을거야"라는 식이지요.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. 하루하루 여러분의 생활이 행복한 과정의 연속이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과의 싸움이어야 해요.

- 강수돌

신곡중학교를 졸업하는, 나의 소중한 친구들에게

이루펀트의 '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:졸업식'을 들으며 (이 노래 꼭 한 번 들어봐요!)

김동욱

(18일에 처음 쓰고, 20일에 고쳐 쓰고, 20~22일 사흘 동안 친구들에게 건네줄 편지)